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0, 에베소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신약의 역사와 문학, 에베소서 20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될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에 대한 다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는 이번 수업 시간에 월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기간.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이메일을 보냈듯이 이메일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내일 밤 8시에 이 방에서 제 TA가 이끄는 복습 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당신이 다른 방을 찾으려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 내일 밤 8시에 이 방으로 오십시오. 선택 사항이지만 시험에 대한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중 몇몇이 나에게 이것을 요청했고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 횟수만큼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리뷰 세션을 하나만 표시하면 이에 대한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네 가지를 모두 표시하면 더 많은 성적을 매기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8시에 이 방에서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시험은 확실히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분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등급이 매겨져 있지만 제가 말했듯이 제가 해결하고 있는 몇 가지 등급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금요일에 올라야 두 번째 시험 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우리가 고려할 다음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신약성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당신을 은혜롭게 나타내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계시를 연구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이해하는 데 우리의 모든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으며, 이 수업이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거나 제가 제안한 것은 바울이 앉아서 단순히 율법 신학이나 칭의와 구원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신학이며, 그것은 종종 유대교인으로 분류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즉 바울 자신이 섬기는 남부 지방 교회에 침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나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정체성의 표시로, 즉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실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든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구원, 칭의, 성령의 약속은 모두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직선으로 그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 즉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괄호를 없애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고 필요한 구성요소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고 유대인처럼 유대교인으로 살게 될 것임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특히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바울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율법을 괄호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시적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기능했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으므로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고 필요하며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유대교인들의 계획을 취하여 그 점을 괄호로 묶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때까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어떤 의미에서 권위와 능력을 갖는 구약 율법의 주요 기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듣거나 그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것? 나는 그 질문을 간단히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5장에서 바울의 논증의 맨 끝 부분인 5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바울이 대조하는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대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육신과 영을 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이것이며 독자들이 피해야 할 악덕을 나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성령의 열매 목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대조를 자세히 설명합니까?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에, 바울은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이 일시적일 뿐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도덕적인 지도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사랑으로 묶여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이제 부어진 새 언약의 성령 안에서 행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적인 권위와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이 도덕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기대했던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새 언약의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 지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의 법을 부어주시고 기록하여 변화시켜 애초에 율법이 가리키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인 인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 구절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여전히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인들이 율법 아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육체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나열한 이런 것, 곧 육체의 일이니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율법은 그것을 처리하고 육체의 일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신을 이기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걷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이 새 언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게 하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바울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왜 그들은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하여 능력이 없는데도 율법 아래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육체의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새 언약의 성령만이 궁극적으로 율법이 가리키는 삶을 살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법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리고 법이란 어떤 법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했듯이 그가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까?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데 일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에 비추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세 율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약의 대부분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나는 몇 가지 생각합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모세 언약의 일부인 율법의 통치권과 체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언급할 때,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 전체에 비추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 즉 모세 언약이 성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나는 모세의 율법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의 정권과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율법이 단지 제거되거나 폐기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동일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의 열매는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영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열매를 좇는다면 실제로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율법이 가리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히 폐기되거나 버려지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리키는 삶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새 언약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모세의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물어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의 설교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우리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의 렌즈를 통해 율법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인데, 신약성서는 모든 율법을 다 다루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식별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쉬운 예 중 하나는 모든 희생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바쳐졌던 모든 동물 희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예 중 하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지키거나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 동물을 희생시킨 구약의 희생 율법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글썄요, 예수님이 최후의 궁극적인 제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제사의 법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렌즈를 통해 율법을 읽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더 쉬운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 전체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사실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렌즈에 비추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성취의 렌즈를 통해 어떻게 읽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법을 읽을 때 무엇인지 자문해 보고, 법을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물려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표현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특정 시점에 그것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묻는 것 외에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다음 질문은 어떤 주어진 율법에서 이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던 것 같나요? 법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의 표현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레위기 1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는 관자놀이 털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가장자리를 상하게 하지 말지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살에 상처를 내지 말며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좋아요, 그러니 머리를 다듬거나 문신을 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육체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내 말은, 머리를 자르러 가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냐는 것입니다. 문신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내 말은,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신을 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 가장자리나 수염 가장자리를 다듬지 마세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글썄, 그것이 그것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에 비추어, 그리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즉 이 율법의 의도로 보였던 것이 무엇인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많은 주석자들은 이 율법이 이교 종교 관습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신을 하고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이교 종교 관습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의도는 단순히 문신을 하지 않고 머리를 다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 종교와 관련된 관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피하고 싶은 이교 종교 활동과 어떤 종류의 관행과 활동이 연관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 관습을 위해 문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레위기의 명령은 그 중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기를 바라시는 아마도 이교적인 종교 관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심지어 복장 방식까지 우리의 맥락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 종교 유형의 관행과 관련된 그러한 종류의 활동을 피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어떤 종류의 일이나 활동이 나를 이교 종교 활동과 연관시킬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율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는지 묻지 않는 것보다 이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의도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뜻에 대해 무엇을 반영하며, 그렇다면 오늘날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다른 예는 법 중 하나인데, 나는 Ted에게 이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붕 둘레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동.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지붕만 쳐다보고 올라가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너무 투구입니다. 그런데 지붕 주위에 난간이나 울타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집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집 지붕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글썄요, 이 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썄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집 지붕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더 평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라고 한 것은 이웃의 복지와 안녕을 보호하고 그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생명의 가치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웃의 삶.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썄요, 아마도 내 집 주위에 지붕을 쌓거나 내 집 지붕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어쨌든 누구도 거기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 포진. 그렇다면 나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웃의 안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의도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도로 보이는 관점에서 법을 살펴보면, 그 법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편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의 목록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그 제도와 권위 아래 있지도 않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비추어 읽어야 하며, 우리가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의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율법 뒤에 숨은 의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 영의 능력 아래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어떻게 오늘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노트 하단에 몇 가지 리소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Zondervan Publishing Company에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다른 관점, 다른 문제에 대한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새천년, 사역에 종사하는 여성,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교회에 어떤 종류의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취하는가?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지,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서로 반응합니다.

그 책 중 하나는 The Law and the Christian이라고 불리며, 기독교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다섯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며 서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 좋아요, 그게 제가 갈라디아서에 관해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글을 쓴 전체 의도는 갈라디라인들이 모세 율법에 복종하고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들이 소유한 새 언약의 정신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설득하고 설득하여 구원을 위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방식을 위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좋은.

갈라디아서에 관해 다른 질문이 있나요? 좋아요,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서 다음 내용이 설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지만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이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될 최초의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의 죄 이후,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자신의 백성을 재건하고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백성을 찾고 계시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죄로 인해 중단되었던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아브라함과 함께 회복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니 결국 그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세우시는 첫 번째 단계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대면했던 유대교도들은 왜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동일시되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이었는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패턴을 따른다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최초의 인류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언서에는 실제로 흥미로운 유사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험에 실패하고 그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 바벨론과 앗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의도하신 언약 관계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우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신다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의 시험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모든 나라를 보여 주십니다.

그는 그를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 그 순서는 아니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혹과 아담과 이브의 유혹을 모두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된 목적대로 가져오는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죄를 지은 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기준에 대해 논평하기 전에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장에서 주요 질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구원의 축복,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후손들에게는 여럿을 가리켜 복수형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후손에게는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 그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참된 씨, 아브라함의 참된 백성,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29절 끝까지 가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갈라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나는 우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그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참된 아브라함의 씨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기준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특히 이 책에 나오는 바울의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참된 기준은 모세 율법 아래서 사는 삶,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십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 정체성도 아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살지도 않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했나요? 저는 항상 이 노래가 좀 이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다는, 아버지의 많은 아들이 있었다는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노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보다 더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 노래는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 심오한 신학적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복종하거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 자격이 더 이상 국가적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로 인해, 이 계획으로 인해,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운명과 목표에 도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것은 신약성서가 보는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신약성경 책들에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약성경 본문을 취하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썄, 나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와 우리의 관계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매우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괜찮은. 자, 초대교회 메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월요일 시험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올 3번 시험에 나올 것이라는 컷오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갈라디아서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설명을 포함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한 사도행전은 시험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메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서신 모음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기록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 네 개의 편지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그가 감옥에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이 편지를 쓴 것도 로마 감옥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들 중 일부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와 가이사랴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건을 논쟁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글자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생애의 연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일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울이 투옥된 장소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그가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나는 에베소서, 즉 이 책의 이름이 에베소서인 것은 아마도 잘못된 명칭일 것이며 아마도 에베소서에게 보낸 편지로 명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작하면, 나는 여전히 그것을 에베소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언급되는 방식이고, 다른 어떤 일을 하면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얘기 좀 할게요, 목적이 있나요? 바울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방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일종의 거짓 가르침, 즉 교회에 침투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세의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유대교도들과 싸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책을 쓰게 만든 비슷한 문제나 위기가 이 책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 것 같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일부를 통해 그것을 옹호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한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지난번 이 수업을 가르쳤을 때부터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과 9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머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10절, 실제로는 10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때가 찬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이룬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는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관한 것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는 하늘과 땅,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 논쟁을 벌이겠지만, 왜 이런 그림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은 바울에 관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의 고대 에베소 원형극장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직접적인 계획이나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의 처음 세 장은 암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Paul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Paul의 버전이지만 아직은 이미 버전이 아닙니다.

예수의 왕국 가르침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그것을 바울과 관련하여 지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그리스도에 속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명령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표현합니다.

왕국이 완전함과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명령과 명령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는 다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다른 구조적, 문법적 지표가 있지만, 에베소서는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상당히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처음 세 장은 직설법으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합체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4장부터 6장은 더 명령적인 부분, 즉 명령으로 전환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비추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응답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3장은 4장부터 6장까지의 기초를 제공하고, 4장부터 6장은 1장부터 3장까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4~6은 1~3장에 있는 직설법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앓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비추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나누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에는 두 권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두 권짜리 주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이런 식으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왜 기록되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모든 편지 대부분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앓아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야 했습니까? 그는 왜 로마서를 썼는가? 그리고 우리는 꽤 그럴듯한 제안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신약학도들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를 독자적으로 읽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일탈되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주요 가르침이 있습니까?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선 일반적으로 바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두 부분 사이의 전환으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간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언급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라는 명령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주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직설법에 기초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들의 부르심에 기초하여, 이제 그들은 일관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시간을 내어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도 우리 대부분은 왜 갈라디아서를 읽는지에 대한 다소 그럴듯한 설명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에베소서와 함께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교인이나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을 화나게 하고 이 편지를 쓰게 만든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 하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에 관해 한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핵심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능력 있는 언어, 힘과 능력에 대한 언급 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몇몇 구절의 목록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말씀하시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게 하겠느냐? 힘과 힘의 조건이 쌓이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장 21절, 그 두 구절 뒤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힘과 힘의 의미론적 영역에 언어가 쌓이는 것을 주목하세요. 3장 7절 이 복음의 예를 한 가지 더 너희에게 보이노니 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서 에베소서의 크기에 비해 이 힘과 능력의 언어는 불균형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바울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문제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메모에서 다음 섹션인 클린턴 아놀드(Clinton Arnold)의 제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클린턴 아놀드(Clinton Arnold)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이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을 옹호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클린턴 아놀드(Clinton Arnold)는 탈벗신학교(Talbot Theological Seminary)의 신약학 교수이다.

캘리포니아주 바이올라대학교 신학교입니다. 클린턴 아놀드는 이 모든 권력 언어가 마법의 상황을 다루는 바울의 반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거나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은 마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종류의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기 초에 1세기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으로서 마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은 주문을 통해 신이 행동하도록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Arnold가 하는 일은 수많은 초기 자료와 1세기 경의 문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Arnold는 에베소 기독교인들이 마술에 폭 빠졌으며 영적 악마 존재가 그들의 운명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한다는 생각에 폭 빠졌다고 제안합니다. 세계.

그리고 마법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주문, 올바른 기도와 말 등을 통해 신들이 악의 세력을 행동하거나 막도록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rnold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Paul이 이 모든 권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영적인 힘, 이러한 적대적인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는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나타난 그 능력에 이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권력의 언어는 마법의 문제, 그리고 영적 세계와 악마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가 그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그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과 영적인 악한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며,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은 더욱 크고 다른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셨으니 저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클린턴 아놀드의 제안이고 매우 흔한 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에베소서를 마술과 악령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반응으로 읽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에베소서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에베소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제안을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의 역사와 문학, 에베소서 20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